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광주시, 통합건강센터 문연다

내일 서구 첫 개소…동·서구 3곳씩 시범운영

건강매니저가 치매·고혈압 등 통합 건강관리

동구 만성질환·서구 의료진 방문진료 특화

광주시는 집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거점으로 전환하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의 핵심과제다.

광주시는 통합건강센터 공모를 통해 동구와 서구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자치구별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3개 권역씩 담당하는 총 6곳의 통합건강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서구 통합건강센터로 16일 개소식과 함

께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통합건강센터 6곳의 위치는 동구의 경우 1권역 통합건강1센터(동구 서남로 1), 2권역 통합건강2센터(동구 밤실로 113), 3권역 통합건강3센터(동구 지원로 31-9)이다. 서구는 1권역 상무통합건강센터(서구 윤천로172번길 32), 2권역 농성통합건강센터(서구 경열로 33), 3권역 풍암건강센터(서구 경열로 33, 임시 운영)이다. 다만 풍암건강센터는 2026년 초 풍암동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통합건강센터 운영 이전에는 이용자가 치매검진, 금연, 운동, 만성질환 상담·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시설을 개별적으로 방

문해야 했지만, 센터 개소와 함께 이용자가 가까운 권역별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의 인력 재배치와 조직 개편을 통해 각 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건강매니저를 신설 배치해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매니저’는 시민의 건강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측정 등 기본 검사와 생활습관 설문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군(A군), 정기관리군(B군), 자기역량지원군(C군) 등 관리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의료진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를 돕거

나 이용자가 통합건강센터를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통합건강센터에서는 통합건강평가, 치매검진, 정신건강, 금연, 고혈압·당뇨관리, 영양, 절주,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 상시 또는 요일제로 공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치구별 특화서비스도 운영한다. 동구는 만성질환, 건강교실을, 서구는 의료진 가정 방문진료 확대를 진행하기로 했다. 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이 주어진다.

시는 통합진료센터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긴밀히 협력해 의료와 간호,

복지 등 통합 지원 기반을 조성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 자치구로 확대해 전 시민이 균등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운선 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보건소가 시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보건소를 지역 건강 돌봄의 중심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국제농업박람회’ 경진대회·체험 풍성

고교생·농업인·대학생 참여 ‘스마트농업 경연’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첨단기술과 체험행사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의 현장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 등 미래 농업기술이 총출동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농업의 변화를 보여줄 예정이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대표이사 김행란)는 오는 23일부터 7일간 박람회 기간 동안 농업 기술 경진대회와 시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농업기술원 대

강당과 농기계 시연장 등에서 진행되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농업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가한다.

행사의 첫 시작은 23일 ㈜대동의 무인자율주행 운반로봇 시연이다. 이어 24~25일에는 농기계 전문기업 ㈜진트와 ㈜아그모가 각각 자율주행 키트를 장착한 트랙터를 선보인다. ‘무인 트랙터’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트랙터의 농작업 효율을 비교하는 실증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27일에는 미래 농업의 주역인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스마트농업 드론제어 경진대회’ 본선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드론 자동 비행 설정

과 작물 생육상태별 정밀 방제 기술을 겨루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어 능력을 선보인다.

이어 29일 전남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주관의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농업용 로봇경진대회’ 본선이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도 교통·생활안전 O·X 퀴즈대회’ 14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도 교통·생활안전 O·X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정답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시민 목소리 직접 청취”

광산구청서 의견 수렴…이병훈 “현안, 책임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는 14일 광산구청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광주시민 의견 청취’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민 의견 수렴’ 행사는 청년 인구 유출, 정체된 광주 경제, 도시 경쟁력 저하, 지역 불균형 등 광주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시민과 함께 진단하고, 호남발전을 위한 광주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호남발전특위는 이번 행사에서 모아진 시민 의견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 과정을 거쳐 광주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한 현장 방문 계획과 더불어 상공회의소 간담회, 광주전남언론포럼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선출직 공직자 간담회 등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광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의 동력을 시민과 만들어가겠다”며 “마련된 정책은 정청대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발전특위는 15일 오후 2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위치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방문해 미래차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차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채은지 “광주, AI 산업은 속도…교육은 제자리”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강조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전)은 14일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 집문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교육정책에서도 뒤처져선 안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AI 교육정책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광주는 AI 2단계 사업과 데

이터센터, AI영재고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실에는 AI교사가 없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AI를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팩토리(미래교실), AI-ON 플랫폼, AI교육원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시설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AI팩토리는 114개교에 구축됐지만 특별실 수준에 그치고, AI-ON 플



랫폼은 교원 가임률 30%, 교사 제작 콘텐츠는 10% 미만으로 활용도가 낮다”며 “내년 개원 예정인 AI교육원도 기초 체험 위주로 ‘전시 행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광주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AI 교육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AI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sky@

박미정 “광주형 조식지원 확대 제도화 시급”

아침 결식, 학생 건강 위협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사전)은 14일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아침 결식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문제”라며, 광주형 아침 간식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청소년 42.4%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며 “광주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 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곡중·광주여상고·광주경신여고를 방문한 결과, “학생 참여율이 높고,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은 3개(2025년 5월~2025년



12월) 학교에서 2025년 기준 6000만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아침 결식을 감소와 학습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 성과가 분명히 드러난 지금, 신중론으로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며 “광주형 교육복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